

CONTENTS

- 1 열린단상
- 2 해외 리포트
- 3 연구원 리서치
- 4 시사 리서치
- 5 정책 현안 이슈
- 6 HOT ISSUE
- 7 WOMAN POLICY
- 8~10 PRCUD전북라운드테이블포럼
지상중계
- 11 사진으로 본 PRCUD
- 12 연구원 소식

전북발전연구원

열린뉴스

J E O N B U K D E V E L O P M E N T I N S T I T U T E

새만금을 세계로, 전북을 세계로

외국인의 눈에 비친 새만금은 어떤 모습일까? 새만금이 국경을 뛰어넘어 국제무대에 진출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3일간 “전북을 세계로”라는 주제로 외국의 도시 및 지역발전전문가와 국내전문가등 100여명이 전주에 모여 새만금에 대해 집중토론을 벌였다.

환태평양도시발전협의회(PRCUD : Pacific Rim Council on Urban Development)와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북발전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전라북도의 가장 큰 현안인 새만금을 주제로 한 최초의 대규모 국제학술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새만금을 주제로 수없이 많은 세미나를 개최했지만 이번처럼 외국의 전문가 20여명이 머리를 맞대고 국제적 관점에서 성공한 선진외국의 간척사업 사례를 바탕으로 새만금을 재조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포럼은 전북의 닫힌 문을 세계를 향해 활짝 열고 세계속의 새만금으로, 더 나아가 세계속의 전북의 가치를 부여하고 국가 및 지역혁신의 촉매제로 역할을 부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동북아관점에서 본 새만금의 지리적 매력을 재확인하고 이의 성공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과 투자부분에서도 참신하고 기발한 대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을 보는 경직된 시각에서 벗어나 시대환경의 변화에 맞게 유연성을 강조하며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제도적 관점에서 새만금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새만금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미래비전을 창출하기 위해 혁신적 사고와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단계별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새만금의 전략적 접근 즉,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설정해 가치를 부여하고 평가를 통해 방법을 선택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개발청 같은 기구설립과 함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등이 토론의 주요 핵심으로 부상했다.

한편 포럼에 앞서 토론회에 참여한 외국의 전문가들은 새만금사업 현장을 직접 답사함으로써 선진간척사례와 학문적기초 위에 현장감과 입체감을 더해 여느 토론보다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토론이 되었다는 평이다.

새만금은 무궁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한 기회이자 도전이다.

이제 전북의 희망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인 새만금이라는 상품에 고부가가치를 부여해 세계 시장에 출시함으로써 세계인의 눈에 새만금이 번쩍 띄게 하는 역할은 우리들의 몫이다.

전북발전연구원장 한 영 주



전북발전연구원 열린뉴스
2005년 11월 통권 제6호

발행인 · 한영주
 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http://www.jd.re.kr>
 TEL. (063)286-9201
 FAX. (063)286-9206

Route 128을 가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는 인적자원의 개발이 지역의 경쟁력으로 통한다. 특히 전라북도와 같이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잘 훈련된 인재의 육성과 개발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전라북도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이강진 사무국장의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해외 선진 인적자원 개발사례수집결과를 3회(미국 보스톤과샌디에고, 캐나다 오타와)에 걸쳐 심는다.

편집자 註

1. 서두

Route 128은 총 길이가 90Km 정도의 보스톤 지역의 한 도로의 이름이며 128번 도로 주변에 전자산업 관련기업 집적지로 매우 유명해졌다. 1970년대 보스톤의 Route 128은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벨리와 함께 전자제품의 혁신을 주도하는 클러스터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전자제품을 통한 기술혁신과 창업정신에 바탕을 둔 기업가정신, 그리고 신제품 개발을 통한 경제적 고도성장을 이룩한 곳으로 매우 유명해졌다.

2. Route 128의 성공과 쇠퇴

Route 128 지역의 예는 한 지역이 산업이 사양화되어가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신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이 심화되는 국제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고도성장을 이룩한 1980년대 중반에 3,000여개의 첨단기술 기업들이 매사추세츠 지역, 특히 보스톤 지역의 미래를 바꾸어 놓는 역할을 하였다.

비록 이 지역이 1980년대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지만 신기술에 기반을 둔 기업들의 성장은 Route 128의 기적으로 불리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2차대전 당시 미국 정부는 군수산업과 관련한 연구를 지원할 필요성을 느꼈고 전후 Route 128의 산업은 군수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군수산업의 특성상 50년대와 60년대 초반에는 협력보다는 비밀을 강조하는 Raytheon과 같은 국방관련 전자회사가 지역을 주도해 나갔다. 하지만 곧 컴퓨터 산업이 부상하게 되었고 MIT 졸업생인 Olson은 벤처기금회사인 American Research and Development Corporation (AR&D)를 찾아가서 Gen. Georges Doriot로부터 7만 달러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1957년 보스톤에서 서쪽으로 20마일정도 떨어진 Maynard에 최초로 Digital Equipment Company (DEC)라는 컴퓨터 회사를 설립한다. 3년 후에 "Minicomputer"라는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고 시장으로부터 엄청난 호평을 받았다. 그 후 30년 동안 DEC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회사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 25개의 벤처기업들이 생겨났고 1970년대에는 Prime Computer와 Computervision을 포함한 23개의 신규벤처기업들이 생겨났다. 1975년까지 Route 128 주변의 기술 집적단지에는 10만명이 고용하였다.

1989년에는 호황이던 부동산 시장이 붕괴, 실업률의 증가, 해고, 구조조정, 파산 등으로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지역의 모습이 통째로 바뀌어 졌다.

3. 시사점

보스톤 지역의 성공요인은 기본학문 연구에 바탕을 둔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혁신센터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는 지난 200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발전에 있어 중요한 기술이 개발된 지역이고 이 신기술이 시장화된 곳이다. 이 지역이 특별한 이유는 미국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3분야인 정부, 학계, 산업의 서로에 대한 긴장과 협력에 기인한다. 교수, 학생, 연구원은 탄탄한 기본학문 연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정부는 그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은 이를 제품화 한다.

진보적인 최첨단 기술을 창출함에도 Route 128 지역은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뿌리 깊은 보수주의 성향을 띠었다. 실험정신과 위험부담 보다는 안정성과 기업에 충성을 보다 더 큰 덕목으로 생각하여 Route 128의 중역들은 실리콘벨리의 중역들이 추구하는 더 나은 보수를 위한 이동 보다는 한 기업에서의 장기고용을 선호하였다. 실리콘벨리가 복잡한 사회적 기술적인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성장을 한 반면 Route 128지역은 자족기업들이 성장을 주도했다. 뉴잉글랜드의 200년 제조업의 전통에 따라 Route 128기업들은 기업 활동을 내부화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등에서 자립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경직적인 구조는 대량생산체제에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나 급변하는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포화와 주식시장의 붕괴,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기업의 내부구조와 운영방식이 Route 128의 쇠퇴를 가지고 온 것이다.

현재 보스톤 지역은 아직도 고등교육기관이 가장 밀집해 있는 지역이며 혁신의 산실로 350여년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테크 클러스터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미국의 Milken Institute가 2005년에 발표한 생명과학 종합지수 (Life Science Composite Index)를 보면 보스톤지역이 1위이고 그 다음으로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혁신능력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상당한 우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톤 지역의 성공을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뛰어난 연구자들이 주축이 되어 정부와 기업이 이를 적극 수용한 결과로 요약할 수 있다면 비록 "매사추세츠의 기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등교육에 기반을 둔 양질의 인적자원이 존재하는 한 새로운 다음의 기적을 창출할 준비는 항상 되어있는 것이다.

전라북도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에서 교육을 받은 양질의 인적자원이 전라북도에 남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급 인적자원을 수요할 기업의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고등교육의 질적향상과 산학연계를 통한 창업정신을 키워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전라북도가 나아가 할 방향으로 생각한다

|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사무국장 이강진

물류비 보조금 지원 조례제정 의의

전라북도에서 발생하는 컨테이너 수출입 화물은 약 314,027TEU로 조사 되었다. 이 중 군산항을 이용하는 화물은 38,814TEU(12.35%)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광양항이 156,511TEU(49.84%)이고, 부산항이 108,555TEU(34.57%)로 약85%가 타 지역 항만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 기업들이 군산항을 이용할경우 광양항과 부산항을 이용하는 것 보다 46%~70% 가량의 내륙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까운 군산항을 이용하면 내륙 물류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어 열악한 전라북도의 중소 수출입 업체들의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전북지역 수출입 화주나 물류업체들이 군산항을 외면하는 이유로는 첫째, 항로가 다변화 되어있지 못하여 적기에 선적할 수 없고, 둘째, 해상운임이 부산항이나 광양항을 이용하는 것보다 물류비가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군산항에 수출입 화물이 대량 집하 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시급하다. 화물이 집하되면 해운선사들은 군산항에 기항하게 되고, 항로가 다변화 되어 적기에 선적 할 수 있고 해상운임도 저렴해진다. 이렇게 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 방안은 군산항을 이용함으로써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북지역 수출입 업체들이 군산항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관건은 어떻게 전라북도의 수출입 화물을 군산항으로 유입시킬 수 있느냐 이다. 여러 대안이 있겠으나 단기간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물류비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안 이다. 즉 부산항이나 광양항을 이용하는 화주들에게 군산항을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우선 급하지 않은 전북지역의 수출입 화물들은 군산항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해운선사들은 이득을 낼 수 있어 군산항에 정기선을 기항 할 것이고 화주들은 적기에 선적할 수 있어 화물 유입이 대폭 증가 할 것이다.

수출입 화물의 유입이 증가되면 규모경제의 원리에 의해 각종 항만사용 요율이 인하되어 해상운임이 저렴해져 군산항은 단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경쟁력이 확보되면 자생력을 갖게 되면 물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도 항만활성화는 지속된다.

군산항 활성화가 지역경제에 가져다주는 효과는 아주 크다. 물류보조금 제도를 실시하면 군산항에 연간30%의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고용창출, 소득증가, 매출액증가, 부가가치 창출 등의 직접적인 지역파급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또한 항만 관련 부대산업, 항만관련 보조산업 등으로 인하여 간접적인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크게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라북도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의 의미는 아주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규칙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첫째, 물류지원 보조금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있다. 물류보조금 지원비 확보는 원칙적으로 중앙의 해당부서에서 마련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역파급효과의 직접적 수혜를 받는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마련하느냐 하는 것인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물류지원 대상 업체 선정이다. 화주에게 지원을 하느냐, 물류중개업체에게 지원을 하느냐, 해운선사들에게 지원을 하느냐가 문제이다. 부산항이나 광양항은 어느 한곳을 지원하지 않고 관련 항만을 이용하는 물류관련 업체들에게 실적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셋째, 보조금 지원의 폭이다. 어느 업체에게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지원하느냐는 보조금효과를 발휘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전라북도의 경우 군산항을 이용하는 관련업체들의 물류집하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는 내국인대우 원칙에 따라 지원의 대상이 내외국업체 모두 똑같아야지 어느 한나라의 화주나 물류업체만을 편중지원 하는 것은 협정에 위배된다. 따라서 내외국인 화주나 물류업체들에게 평등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물류보조금 지원 대상 업체들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물류보조금 지원은 항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경쟁력이 확보되면 규모경제 논리에 따라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의 기간을 설정하고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물류보조금이 단기간에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물류비 보조금 지원 제도를 통하여 군산항이 활성화 되고 전라북도의 기업들에게 물류비절감 혜택이 돌아가 기업환경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산업 · 경제연구팀장 박 형 창

- 1) 전북발전연구원에서 6월~8월까지 전라북도 수출입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2004년도 수출입 물동량
- 2) 전주를 기점으로 컨테이너 40ft기준

조류독감 원인과 대책

금강하구독은 해마다 10월초부터 이듬해 2월까지 30여종 8만~10만 마리의 겨울철새가 머물다 가는 철새도래지로 그 명성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강조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제고하는 학습의 장으로 삼기위하여 매년 철새를 주제로 하는 축제를 계획하여 추진하여 왔다. 올해에도 역시 12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2005 군산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을 열 계획에 있다. 그러나 올해에는 철새가 오는 것이 반감지만은 않다. 1997년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약칭 AI) 바이러스의 변종에 감염되어 사망한 희생자가 홍콩에서 발생한 이후로 이 바이러스가 조류의 배설물 등을 통하여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세계를 공포속으로 밀어 넣고 있기 때문이다.

1997년 홍콩에서 조류독감 ‘H5N1’ 조류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감염된 18명 중 6명이 사망했으며 2003년에는 동남아시아에서 확산된 조류독감 ‘H5N1’ 바이러스로 인해 베트남에서만 40명 이상이 숨졌다. 국내에서는 1996년, 2003년 충북 음성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으나 인체에는 전염되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는 2003년 이후 지금까지 121명이 인체에 치명적인 H5N1형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62명이 숨져 치사율이 50%를 넘는다. 그러나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류독감이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월 중서부 칭하이성에서 발견된 조류독감은 현재 신장령성 F·네이멍구렙훤키첸후난성 등 중국 동북부와 남해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으로 번졌다. 중국이 조류독감의 인큐베이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태국 역시 일간 네이션지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 76개주 가운데 칸차나부리와 캄펑펏, 수판부리, 나콘 파툼, 논타부리 등 5개주에서 조류독감 발생 사례가 확인됐고 34개주는 관찰 상태에 있다고 전하고 있다.

최근엔 북아메리카 지역도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긴장이 팽배해 지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H5N1형은 아니지만 퀘벡과 매니토바주의 야생 오리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조류독감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회에 2천만명분의 백신 구입을 위한 12억달러의 긴급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2005.6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에 의한 감염 사례가 발표된 적은 없으며 2005.9월 기준 전국(127,491천수)대비 13.8%인 17,568천수의 닭을 사육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많은 닭을 사육하고 있는 경기도 30,494천수(전국대비 23.9%)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사육두수로 전라북도 역시 안전지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비말, 물 등에 의하여 전파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전파방법은 분변의 직접적 접촉이다. 사람의 발, 사료차, 기구, 장비, 계란표면에 분변이 묻어 다른 닭에게 직접적으로 전파가 되는 것이다. 오리(집오리, 철새), 거위, 메추리 등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만 임상증상은 잘 나타나지 않으면서 바이러스를 분변으로 배출한다. 계란을 통한 난계대 전염은 일어나지 않으나 난각에 오염된 분변을 통하여 전파될 수 있으므로 질병발생 종계에서 생산된 종란과 병아리의 이동은 질병을 전파시킬 수 있다. 분변속에 있는 바이러스는 최소한 4?에서 35일 이상 생존이 가능하며 바이러스에 오염된 분변 1그램은 약 100만수의 닭을 감염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그 근원을 차단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방역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조류인플루엔자의 1차적 진앙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지역은 아무래도 철새도래지일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강철새태환경관리사업소의 경우 조류 독감대응반과 조수류 소독반, 등 자체방역반을 꾸려 사업소내 보호중인 조수류 방역소독은 물론 투어 버스나 방문객들의 옷, 신발 등을 통해 철새분변이 옮겨지는 것을 차단하는 비상방역체제를 가동시키고 있다.

철새는 이동 오염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이 왕래하는 길목만을 지킨다고 해 방역이 완벽하게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자료에 의하면 철새도래지 벗짚 반출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의 오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충남 천수만, 삼교호, 석문호, 금강하구 등 철새도래지 인근 농경지에 있는 벗짚이 일정한 방역절차 없이 축산농가에 조사료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분변의 직접적인 접촉이 가장 중요한 전파방법인 만큼 철새의 배설물과 깃털 등이 적잖게 묻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벗짚과 난알의 무방역 상태에서 농가로의 반입은 양계장이나 오리농장 등에 전염될 가능성을 크게 높일 것이다. 따라서 철새의 활동영역을 고려한 방역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현재 자연을 이용한 경제적 가치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금강하구, 천수만, 삼교호, 석문호 등의 철새도래지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철새도래지 같은 보존가치성이 높은 자연환경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의 출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인 것이다.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에서 이루어 놓은 인간과 자연의 공생의 필요성을 훼손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환경·지역개발연구팀 김보국

2007년 대비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시·군 간담회

“전북의 발전은 한국의 균형발전으로 통한다”는 말이 나타내는 점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모두들 공감하고 있다. 그만큼 전북의 삶의 질 수준은 한국 경제의 평균치 이하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전북을 기반으로 국가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의 발굴은 그 어떠한 사업보다도 의미가 크다.

전북발전연구원은 이러한 상황분석과 문제인식 속에서 “국책사업의 효율적인 발굴방안의 시행”, “국책사업 발굴에 대한 주민의 참여 의식 확대” 및 “14개 시·군과 연구원 간의 연계망 구축을 통해 찾아가고, 찾아오는 연구체계의 확립”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전라북도의 협조와 지원 하에 “2007년 대비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14개 시·군 간담회”를 도정 사상 최초로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14개 시·군 간담회 실시 상황>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기획·실시하였다.

대규모 공공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국책사업은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 총 사업비가 토목사업의 경우는 500억 원 이상, 건축사업의 경우는 200억 원 이상인 사업 등으로 향후 전라북도에서 국책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굴하거나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국책사업을 상시적으로 발굴·유치하거나 중앙정부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상기 기구로 “국책사업발굴유치연구센터”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은 전라북도 각 분야의 전문 인적 자원을 풀 가동함으로써 사전에 국책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는 경제적 타당성, 효율성과 효과성을 연구 분석하며, 선정된 사업을 정책화하는 데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기구의 필요성과도 연계될 수 있다.

또한 이번에 기획하여 실시한 것처럼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현상 공모를 통한 아이디어를 각계각층으로부터 상시 수렴하는 절차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향후 국책사업의 발굴은 어느 한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두의 관심과 능력 증대, 책임의식의 구축 속에서 참신하고, 미래 지향적인 지적자원을 총 동원하고, 전라북도 실정과 정서에 맞는 대형국책사업의 발굴을 통해 전북의 대외적 경쟁력을 높이고, 내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을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국책사업발굴과 관련한 14개 시·군 간담회의 실시는 비록 최초로 실시한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시·군 전반의 의견수렴을 통한 전북발전의 동력 확보라는 점에서 향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4개 시·군 간담회 실시 상황>

시·군	제안사업
정읍시 05. 10. 12	월드 팜 하우스 건립 제2영화종합촬영소 및 HD 지원센터 건립 내장산 집단시설지구 정비 및 교통문제 개선 국립 내장산 청소년수련원 유치·건립 IAEA(국제원자력기구)지정 아태지역 RT국제협력센터건립 첨단방사선 의료센터 건립
순창군 05. 10. 12	순창장류Valley 조성사업 장수연구센터 건립
전주시 05. 10. 13	전주권 첨단테크노벨리 조성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
김제시 05. 10. 14	새만금 고속도로 건설 사업, 김제 황토 체험랜드 조성 실버산업단지 조성, 바이오 식품과학 연구단지 조성 농경문화 테마파크 조성
부안군 05. 10. 14	지속가능한 국립청소년 환경수련원 건립 부안 신재생에너지 국가산업단지조성 새만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기반 조성
고창군 05. 10. 17	해양문화·생태공원개발, 무형문화촌 조성사업 육지와 해안을 잇는 민속촌 테마파크 조성 선사문화유적 체험 관광지 조성사업
익산시 05. 10. 17	미륵사 복원사업, 국가산업단지조성 익산 Inno-테크노피아 김제~익산(지방도735호)간 건설
무주군 05. 10. 18	태권도공원전망대 및 하늘공원 조성사업 전통공예 테마파크조성사업, 적상~장계간 국도확포장사업 무주 다목적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 건립사업
장수군 05. 10. 18	복합승마 제저 벨리 조성, 남덕유산 레저 벨리 조성 국도 26호선(진안~서상) 4차선화 사업 장수 웰빙 복합 실버타운 조성
진안군 05. 10. 19	산양삼(장뇌삼) 클러스터 구축 국립홍삼·토종약초 연구소 건립 지방상수도 광역화 사업, 자립형 교육인프라 구축
임실군 05. 10. 19	오수외견 프로젝트 사업 국도 30호선 확·포장 사업
완주군 05. 10. 24	모악산종합개발사업 완주 제2첨단과학 산업단지 조성사업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개선 사업, 만경강변 국도 개설사업
남원시 05. 10. 24	지리산 자생식물연구단지, 영어체험 관광 빌리지 허브 및 향기 산업 육성, 남원시 조경수 단지 조성 지리산 고원 레포츠타운 조성, 월드드림테마파크 조성 지리산 허브건강타운, 노인건강관리센터 남원시 태양광전지 발전파크 조성
군산시 05. 11. 04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화예술센터 건립 새만금 종합경기장 조성, 군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해상 밀레니엄 공원 조성, 선양로 확장개설 사업 국지도 개설(금동~나포면 군산시계) 고지대 불량주택지역정비사, 수해상습지(경포천) 개선사업 원자력병원 건립

| 기획조정팀 안 완 기

혁신도시 선정과 향후 과제

혁신도시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전라북도와 혁신도시 유치 시·군의 발걸음이 매우 바빠졌다.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함께 수반되어야 할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주도면밀한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라북도는 이미 관 주도의 협의추진기구가 아닌 민간중심의 전문 추진기구를 이미 출범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야기될 수 있는 주요사안에 대한 논의와 결정, 그리고 지원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다.

‘이서지역’이 전라북도 혁신도시로 최종 확정되게 되면, 지역 일대의 입지검토와 도내의 산학연관 파급효과, 지역내 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지역의 환경조건에 부합되는 바람직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등 혁신도시 조성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실천계획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전북의 혁신도시는 전국의 각 지역에서 동시에 조성될 타 혁신도시보다 선도적이며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수반되는 제반 절차에 충실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계량적으로 높은 현실성이 확보된 성과공유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혁신도시 탈락지역의 휴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모색과 지역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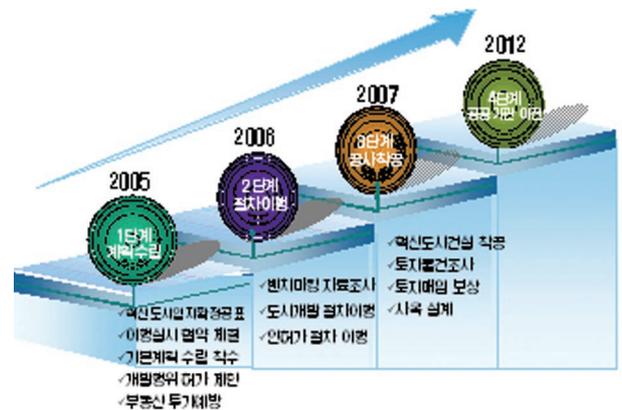
아울러 개발 관련 이행절차와 이전기관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기업유치에 광역자치단체와 혁신도시 유치 해당 시·군이 전략을 수립하고 공동의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모양새만 갖춘 공공기관 이전이 아니라 우리 전북지역의 또 다른 발전의 중심으로서 혁신도시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즉, 이전해 올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이 클러스터되는 혁신도시로 조성될 때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성과도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예상되는 추진주체별 과제이자 추진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방적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지정과 개발행위 허가제한 등이 필요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은 현행법상 최대 5년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9월 말 ‘이서지역’은 기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상당부분이 지정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부지역에 대해 확대지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대상지역의 지가 양등은 혁신도시 조성비용을 부풀리게 할 것이고, 그 비용은 이전기관은 물론 혁신클러스터화 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부담해야 할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후에도 토지거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지정 등이 수반되어야 하며, 확대 지정을 선 시행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둘째, 기본계획의 수립과 도시개발의 절차이행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



전북의 전통을 살린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국내·외 신도시 조성사례의 벤치마킹,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혁신도시 지구지정,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의 인허가 등의 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혁신도시의 골격을 짜는 기본구상은 반드시 사전에 산학연관 협력지원체계 구축이 실현된 혁신도시로 성장되어야 한다. 조성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혁신도시와 기존 도시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등 혁신주체들이 결집된 혁신도시로 계획되어야 한다.

셋째, 토지의 협의매수를 통한 보상완료이후 2007년 혁신도시 건설이 착공된다.

공사착수를 통해 토지물건조사, 토지매입보상, 사옥설계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전북의 혁신도시는 혁신센터는 물론이고 농업시험연구단지(농촌진흥청의 7개 농업시험연구기관이 요구하는 약 300만평 규모의 시험포장) 조성도 동시에 조기 착수되어야 한다. 시험포장은 농업시험에 적절한 토양의 안정화 과정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포 조성을 위해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이 고용된다는 점에서 이 시기가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본격적으로 지역내 고용창출효과를 발휘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넷째, 계획수립, 절차이행, 공사착공에 따라 2012년 까지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게 되면, 전북의 혁신도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자족의 정주도시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북의 혁신도시로 이전해 올 공공기관들은 선도 공공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2010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에서 혁신도시 유치 자치단체는 물론이거니와 전북권내 모든 지역 주민이 특정의 혁신도시에만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스스로가 비혁신도시에 사는 주민으로 내 비쳐지지 않도록 정책입안 시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배려와 접근도 필요하다.

| 환경·지역개발연구팀장 이창현

분권시대 여성정책의 기반과 발전방향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다. 그러나 정부 수립 이후 가속화되어 왔던 중앙 중심의 체제를 재편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지방분권은 지역여성정책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선, 지방재정이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지방분권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운 것처럼 여성정책의 비중과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자칫 여성정책의 위축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다. 지금까지도 여성정책은 예산과 기구, 조직의 개편면에서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움직여 온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역여성의 실정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전라북도는 성주류화 도구로서 성별통계 실시, 여성인명록 보유,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수립 등을 시행해 왔다.

2005년 전라북도의 전체예산은 2조 4,963억원이었는데 그 가운데 복지여성국 예산은 596,598백만원으로 23.9%를 차지했다. 그러나 국의 예산은 대부분 사회복지쪽에 치중되어 있고, 여성정책에 관한 순수예산은 4,346백만원으로서 이는 복지여성국 예산의 1.15%, 도 전체 예산의 0.24%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여성정책은 한부모 가정 지원에 대한 예산, 그리고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대부분이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든지 여성인력 개발 및 일자리 창출 교육 지원 부문은 현재 미미한 수준이지만 시대적 요청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의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성발전기금은 본래 1997년부터 2005년까지 6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3년에 이르러 목표달성이 어려워졌고, 이자율이 급락하면서 기금이자를 이용한 사업추진에 의문이 제기되자 전라북도는 기금정립을 중단하고 목표치를 60억에서 30억으로 재조정하였다.

전라북도의 인구는 2005년 현재 총 1,894,930명으로 이 중 여성이 951,572명(50.2%), 남성이 943,358명(49.8%)으로서 여성이 약간 많다. 특히 유권자의 경우는 2004년 총선에서 여성유권자가 51.2%로 남성유권자 48.8%보다 2.4%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원 비율은 현저히 낮고, 기초의원의 경우 1998년 지방선거에서보다 오히려 여성의원의 수가 더 줄었다.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약 25%인데 전라북도는 약 2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4.3%로서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다. 위원회 여성비율은 정부권고 수치인 36%를 초과달성하여 37.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2002년 현재 전라북도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여자 47.9%, 남자 70%로 전국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여자 49.7%, 남자 74.8%)보다 낮은 비율이다.

여성 자원봉사활동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지

표이다. 자원봉사는 도·시·군의 여성자원활동센터(15개소, 4,013명)와 구·읍·면·동의 여성자원봉사단(186개소, 4,078명)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3억 3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전라북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는 등록된 단체를 기준으로 2005년 현재 도 39개 단체 358천명, 시·군 176개 단체에 72천명이다. 예산액은 342백만원이며, 이 중 123백만원이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이다.

지방자치제도가 가지는 장점 중의 하나는 지역의 실정에 적합하고 지역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요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자료가 준비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여성정책의 주 대상은 요보호 여성이었다. 따라서 여성정책에 관한 예산 역시 이들을 중심으로 집행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제 기존 요보호여성 중심의 여성정책 방향을 인적자원의 개발 쪽으로 방향전환을 시도할 때가 되었다.

지금 한국사회는 세계 최저의 출산률과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가능한 대안은 고학력 여성들의 사회참여이다. 이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으로 고학력 여성들의 재교육과 이들의 취업전선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인권은 여성에게 있어서 아주 새로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가정폭력과 성폭력-은 가정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령이나 조례는 예산의 집행 및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된다. 전라북도는 2003~2007에 이르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2004년)하여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법이나 제도를 제정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존의 법이나 제도에 내포되어 있는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찾아내어 정비하는 일이다. 더불어 제도를 집행하는 인력들에 대한 점검과 성인지적 교육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이나 정책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지방의회를 통해서이다. 여성의원의 양적 증대는 그대로 여성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 향상으로 반영된다. 따라서 여성의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은 지방분권 시대 여성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 여성정책연구소장 전 정 희



제3회 새만금의 날을 맞이하여 한태평양도시발전협의회(PRCUD)와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전북발전연구원이 주관하여 지난 10월31일부터 3일간 전북을 세계로 라는 케치프레이즈를 걸고 새만금을 주제로 국제라운드테이블 포럼을 개최했다. 북미,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등 외국의 지역발전전문가 20여명과 국내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포럼은 새만금을 주제로 한 최초의 대규모 국제학술행사로 전라북도의 희망인 새만금사업을 국제적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미래비전 창출을 위한 기본틀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본지는 3일동안 거론된 주요 이슈(기조연설, 세션별 토론요약)들을 요약 정리 했다. 편집자註

“새만금 大役事, 꿈인가, 현실인가?”

"전북 지역경제를 다른 곳에 비교하여 어떻게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시발점으로, 그리고 그 주요한 해결책을 지역간 시너지 효과와 조직구성능력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9가지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1. 지리적 장점(Geography)

다른 지역과의 위치상 입지를 고려하여 도시는 발전할 때 교차점이나 토지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국제 운송네트워크 형성과 실용적인 항공, 항만의 해상운송이 가능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새만금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세계 화물의 수출과 수입이 자유로운 곳을 중심으로 항만 시설을 비롯한 물류관련 하부인프라를 확충하고 유통단지가 조성되어 지역의 직간접적 고용창출을 비롯한 지역 경제의 중심지로서 육성해야 한다.

2. 사회적 권력구조(Power Structure of Society)

권위적이고 경직적인 조직의 유연성이 우선 필요하다. 2년 전 월드컵에서 한국팀의 좋은 결과는 히딩크를 중심으로 위계와 질서를 유연하고 조직적으로 정립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3. 지역적 공감대(Regional Consciousness)

조직적 능력도 필요하고 국제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공감대와 대처능력도 중요하다. 지역발전에는 적응과 변화가 필요하다. 통합된 개발전략과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며, 역사적 교훈도 중요하다

4. 자율과 자치(Autonomy)

사업추진상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사회하부구조가 분산되어 나름대로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과다한 경쟁에 의한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직적인 역량과 리더십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도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5. 조직구성 능력(Organizational Capacity)

조직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항만활동의 중심지를 설정하고 항만과 산업단지의 결속을 추진하여 단독적인 입지 개발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종합적인 계획의 일부로 해야 한다. 로테르담의 경우도 개별적인 사업 추진시 자연훼손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됨으로써 사회 환경개선, 자연 환경개선 등 관련 부서들이 결속하여 1997년에 공동조사연구를 추진하였는데, 이는 개별적으로는 3개의 사업이 결합한 것이다.

6. 역사적 교훈(Learning from Society)

로테르담이 주는 역사적 교훈은 비록 세계대전으로 지역의 경제, 사회적 인프라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만산

업과 관련 산업을 입지시키고 협력적으로 발전시킴으로서 지역 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성장하였고 경제재건 뿐만아니라 경제발전의 핵을 형성하였다. 로테르담항은 1964년 최대항만으로 성장했으나 2000년에 싱가포르가 제1의 항만국가로 등장했고, 최근에는 상해항이 로테르담을 추월하여 급부상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항만 산업은 주변 국가나 주변 지역과의 유기적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7. 혁신능력(Innovative Capacity)

변화를 도모하는 의지가 혁신이다. 조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혁신적 환경을 조성해야 조직적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고 사회변화의 가치에 대응한 환경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8. 수렴되는 사회의 가치(Accepted Societal Value)

단기적으로 지역 경제적 성장에 관심이 많아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역 생태환경문제에 대한 반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도시재생문제와 조화로운 방향으로 항만발전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9. 창조적 진행과정(Creative Processes)

전주가 고유의 문화적 배경을 강조하는 것은 현명한 방식이다. 그러나 다른 문화와 다른 의식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러한 창조적 진행과정에 의해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종교관, 가치관, 정치관의 재정립도 필요하다. 창의적인 과정이 존재하는지 교육과 생활의 질에 관한 창의성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지적을 배경으로 전라북도의 개발안에 대해서 항만 개발, 간척사업, 지역개발을 하나의 사업으로 연결해야 한다. 팽(중국교수)의 최근 논문에서 황해경제지역은 가장 빨리 발전하고 있고 역동적인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다. 1960년에 총수출입 교역은 전 세계의 12%를 차지했고, 2003년에는 2조 달러규모로 세계교역의 25%를 차지한 것이 황해경제권이며, 그 안에 중국, 일본,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새만금은 성장의 기회가 있다. 이는 팽교수의 평가 같이 개발지역의 중요성을 초고속 경제발전의 엔진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 80년대 이후 18개 거점이 존재하고 있으나 핵심적인 방향을 관련 업계의 외국인 직접투자, 수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Drs. Roel den Dunnen(네덜란드)

- Rodun 컨설턴트사 대표
- (전)네덜란드 주택·국토계획·환경성 차관보
- (전)네덜란드 로테르담 부시장

네덜란드 공간계획 위원장
로테르담 공간계획 대학교 교수
로테르담 시청 항만 및 경제 국장

PRCUD 전북 라운드테이블 포럼에 참석한 국제전문가 프로필

Carole Brookins(미국)

- 국제 컨설턴트
- (전)세계은행 그룹 미국 전무 이사
- (전)세계 퍼스펙티브사(건설탕업무) 회장
- 관심영역 : 국제기업 및 정부의 투자 자문, 세계은행 관련 사업검토 및 결정

Terry Byrnes(오스트레일리아)

- 도시계획 디자인 및 건축 전문회사(번즈와 동료) 사장
- 환경 및 계획법률사 부사장
- 시드니 지역사회계획팀 회원

Cor Dijkgraaf(네덜란드)

- PRCUD의장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시지역개발연구원 수석고문
- 국제기념물유적협회 회장
- 네덜란드 로테르담 도시문제해결기업 이사
- 네덜란드 로테르담 소재 국제기구인 주택과 도시발전연구소 소장
- (전)미국 남가주대학교, 데라웨어 대학교, 스웨덴 룬드 대학교 강사
- 관심영역 : 주택 및 도시발전, 도시 재개발 및 도시유산

David Dowall(미국)

-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 도시지역개발학과 교수, 도시지역개발연구소 소장
- (전)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 교환 교수
- (전)워싱턴 세계은행 도시분과 교환교수
- 관심영역 : 인프라경제학, 도시경제발전 및 계획, 재정분석 및 사업평가

Roel den Dunnen(네덜란드)

- Rodun 컨설턴트사 대표
- (전)네덜란드 주택·국토계획·환경성 차관보
- (전)로테르담시 항만담당 부시장
- (전)네덜란드 공간계획 위원장
- (전)로테르담 공간계획 대학교 교수
- (전)로테르담 시청 항만 및 경제 국장

Yiu-Kwan Fan(홍콩)

- 홍콩 침례교 대학교, 부총장
- (전)비즈니스 연구센터 소장
- (전)홍콩 대학교 교수
- (전)미국 위스콘신(스트브스-포인트)대학교 경제학 교수
- 관심영역 : 대학, 지역, 제도발전

Schulze Freyberg(독일)

- 독일 철도물류회사 사장

Eric Heikkila(미국)

- 남가주대학교 정책, 계획 및 발전학부 교수

PRCUD 사무총장

- 관심영역 : 도시화의 경제, 지리 및 문화

Geoffrey Hewings(미국)

- 일리노이대학교 경제학, 지리학, 지역학, 도시계획학 교수
- 호주 퀸스랜드대학교 교환교수
- 관심영역 : 도시 지역경제 분석, 지역경제모델의 설계, 수행 그리고 적용

Richard Little(미국)

- 남가주대학교 미살 비즈니스학부 교수
- 남가주 대학교 인프라구조 কেন스톤 연구소 소장
- (전)국가 연구위원회 인프라 및 구조환경 위원회 위원장
- (전)미국 계획 및 재난분석 위원회 위원
- 관심영역 : 건물과 인프라구조 연구, 인프라구조 보호, 위험 완화 연구

Paul Rabe(네덜란드)

- 프리랜서 컨설턴트
- (전)로테르담 주택도시개발연구소, 주택분과, 도시토지관리전문가
- (전)태국 방콕 켈라롱콘 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편집장 및 연구원
- 관심영역 : 도시 토지이용, 도시빈곤 및 주택정책

Narelle Sonter(오스트레일리아)

- 나렐 센터 식물원 교장
- (전)디자인 콜레보러티브사 조경분과 관리자
- (전)프리랜스 원예 및 조경 컨설턴트
- 관심영역 : 조경자문, 조경 마스터플랜 제작

Robert Stimson(오스트레일리아)

- 퀸스랜드대학교 지리, 계획, 건축학부 교수
- 브리스베인시의 전략적 종합계획 수립
- 관심영역 : 도시주택, 기능, 환경, 도시계획 등

Koichi Sunada(일본)

- 큐슈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 교육, 문화, 스포츠, 과학 및 기술성 산학공공영역 협력 조정관
- (전)남가주 대학교 정책, 계획 및 개발학부 교환 교수
- (전)프랑스 대학교(Cathouque) 교환교수
- 관심영역 : 산학공공영역 협력, 도시계획 및 재난관리

Kit Weddle(일본)

- 런던 국제개발사업 사장
- Nelson-Bakewell EU 재산자문회사 사장
- 일본, 중국, 베트남, 터키 등 각국 부동산자문 및 개발업무
- 항구, 항만, 연안산업 토지전문가, 종합적인 항만시설 설치 경험

“새만금을 혁신 촉매제로 도전 속에 잠재된 무궁한 기회를 살리자”

I. 최종 결론

“거대한 도전 속에 잠재된 무궁한 기회를 살리자”
“새만금을 혁신의 촉매제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 새만금 사업은 많은 잠재적 가능성과 좋은 기회들을 내재하고 있음. 이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야 할 것임.
- 주변 경쟁적인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새만금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적 사업을 찾고 이를 추진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전략적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 경제성을 비롯한 다면적인 평가를 해야 할 것임
 - 시행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추진조직체(예, 개발청)를 조직하고, 단순히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궁극적으로 새만금을 경쟁력있는 브랜드로 개발하고 세계시장에 출시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과거 유사한 국내 프로젝트와 관련된 법과 해외 유사 사례들에서 실행되었던 법들을 참고로 하여 특별법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는 새만금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 틀이 될 것임
- 동북아 경쟁지역 간의 협동우위에 기반한 새만금개발의 방향 설정과 경쟁지역간 보완을 통한 상생의 촉매제로 새만금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II. 주요 제안사항

1. 전략적 시나리오의 작성

- 주변 경쟁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으며, 거대한 사업의 잠재적 가치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전략적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 주변지역과 경쟁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항만사업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은 재고해야 함
- 산업적인 성장 이외에 사회, 문화, 환경 등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호 유익한 방향의 전략적인 시나리오 작성 필요
- 다양한 선택들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평가 방안 고려
- 종합기본개발계획의 단계별 활용가치나 필요성을 분석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추진 필요

2. 혁신적인 추진체계로서 민간 및 전문가 중심의 사업추진

-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조직적 혁신을 통해 이 지역에 적

합한 새만금 사업의 추진체계 수립 필요.

- 이러한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함
- Top-Down방식을 지양하고 새만금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간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을 해야 할 것임
- 민간, 전문가 그리고 정부가 새만금의 비전과 잠재적 기회를 충분히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별 마스터플랜을 조정하고 추진해야 함
- 특별개발청이 업계나 투자자의 제안을 수용하여 개발 기회를 마련
- 사업의 계획, 관리 그리고 실행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인 One-Stop Service를 제공해야 함

3. 사회간접 인프라의 확충

- 주변 인프라의 실태 파악과 새만금 사업에 필요한 교통, 물류 등의 연계 시스템 보완 및 신설 - 특히 철도나 소규모 공항의 필요성 고려

4. 특별법의 제정

-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기관, 특히 신설될 특별청의 역할과 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특별법의 제정
- 새만금 사업에 따른 소유권이나 임대권에 관련된 사항의 체계적 관리
- 토지의 소유, 개발에 따른 장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분쟁이나 이권 싸움)들에 대한 대응책의 명문화

5. 국내외 사례의 활용

- 국내외 사례를 점검하고 새만금 사업에 필요한 교훈을 수용해야 함
- 지역에 적합한 산업 클러스터나 잠재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의 노력이 필요

6. 새만금 조성 부지와 자원조달에 대한 대안

- 자원조달과 연계하여 조성부지의 임대 문제를 결정해야 함
- 사용권을 개발청에 귀속하고 개발청은 이를 민간에 임대한 후 이를 통해 얻어지는 임대수입을 기반시설 마련 재원으로 활용하는 대안을 고려
- 소유권이나 사용권 임대에 따른 비용은 일시불 납입 방식이나 할부 납입 방식을 모두 고려할 수 있음

정리 | 기획조정팀장 이승형

사진으로 본 PRCUD 전북라운드테이블포럼



◆ PRCUD전북라운드테이블 포럼 회원 기념 촬영 ▲



◆ 전통문화체험 장구 ▼ 한지 ▶



◆ 환영리셉션 ▲



◆ PRCUD전북라운드테이블 포럼 ▼



◆ 새만금 현장 답사 선상 브리핑 ▲

◆ 비즈니스 센터 ▼



전라북도인적자원아카데미 · 인적자원개발 포럼

본원 전라북도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는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전라북도인적자원아카데미와 전북인적자원개발포럼을 개최한다.

인적자원아카데미는 11월 3일을 시작으로 전북대학교 진수당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연말까지 3회에 걸쳐 개최되며 인적자원개발포럼은 본원 대회의실에서 11월 11일 2회 포럼이 시작된다.

〈2005년 인적자원 아카데미 일정〉

주 제	비 고
제1회 인적자원이 전북발전의 미래이다	일시: 2005. 11. 3(목) 16:00~18:00 장소: 전북대학교 진수당
Session1: 왜 지역인적자원개발인가?	송용배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정책국 정책조정과장)
Session2: 전북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인적자원개발	두재균 (전북대학교 총장)
제2회 전라북도 산업인적자원 개발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일시: 2005. 11. 17(목) 16:00~18:00 장소: 전북발전연구원 회의실
Session1: 산업인력의 인적자원개발	송시열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력개발국장)
Session2: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윤봉락 (현대인재개발원 HRD사업본부장)
제3회 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유도방안	일시: 2005. 12. 1(목) 16:00~18:00 장소: 전북발전연구원 회의실
Session1: 자치단체 인적자원개발 현황과 과제	백재현(예정) (광명시 시장)
Session2: 우수사례를 통한 인적자원 활성화	오제직(예정) (충청남도 교육감)

〈2005년 전북인적자원개발 포럼 일정〉

주 제	발 제 자	일 시
제1회 전북인적자원개발과 관리의 비전	이경선 (전북대 교수)	2005. 10. 28(금) (16:00~18:00)
제2회 전라북도 문화관광산업인력개발 방안	성기만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2005. 11. 11(금) (10:30~12:00)
제3회 전라북도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방안	채수 (군장대학교 교수)	2005. 11. 25(금) (16:30~18:00)
제4회 전라북도 학교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방안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2005. 12. 9(금) (16:30~18:00)

본원, 한·중 학술 교류 대회

본원과 학술교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강소성 사회과학원이 개최하는 「국제학술포럼」에 초청을 받아 11월 7일부터 3일간 학술논문 발표 및 토론에 본원 원장을 비롯한 연구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번 국제학술포럼의 대 주제는 '중국과 한국의 조화로운 협력과 발전'이란 주제로 본원 나상균 연구위원이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의 투자 및 성공전략, 이승형 연구위원이 한국 농촌 지역개발정책의 현황과 주민참여 방안, 박재규 연구위원이 한국 여성과 남성의 사회활동참여 차이 분석 등을 발표했다.

**한태평양도시발전협의회(PRCUD) 차기의장에
한영주 전북발전연구원장 선임**

한태평양도시발전협의회 차기 의장에 한영주 전북발전연구원장이 선임됐다.

한태평양도시발전협의회는 코아리베라호텔에서 새만금을 주제로 한 전북라운드테이블포럼을 마친 후 임원선출을 위한 제16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차기 의장으로 한영주 전북발전연구원장을 선임했다.

한영주 차기 의장은 2006년부터 2년간 한태평양도시발전협의회를 이끌면서 한태평양 주변에 걸쳐있는 도시를 순회하며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영주원장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주제발표

본원 한영주원장은 지난달 5일 대구에서 열린 제2회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개막식에서 1천명의 지역혁신협의회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지역혁신협의회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북의 추진사례와 향후 역점추진과제등을 소개했다.

본원 한영주원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간담회

본원 한영주원장은 24일 전주를 방문한 대통령 직속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고철환위원장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본 간담회에서는 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및 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 2005 PRCUD전북라운드테이블포럼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전북발전포럼」 원고모집 ■

- 원고성격 : 지역현안 등과 관련된 칼럼, 논문 등
- 제출기한 : 수시모집
- 제출방법 : 이메일(이메일로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디스켓과 함께 제출),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알림

■ 「연구과제」 공모 ■

연구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로 채택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본원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등을 송부해 드리며, 심사를 거쳐 공동연구참여 등의 기회를 드립니다. 아이디어 제안은 홈페이지 www.jd.re.kr(연구제안)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